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LETTER

JULY 2023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35



6월 Wallkill Golf 대회

2023년 6월 8일 골든클럽 골프대회를 Wallkill Golf Club에서 가졌다. 개최하는 것 부터 위태위태하였고 비록 참여인원이 28명으로 비교적 조촐하였지만 훌륭히 치른 대회였다.

6월 6일은 뉴욕/뉴저지 지역에 최악의 공기질 상태(AQI)를 보여 주었는데 그날 오후에 뉴저지 사무실에서 창문 바깥으로 누런색의 하늘을 보게 되고 심지어 가슴이 답답한 느낌까지 경험하게 되어 정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 목요일 골프대회를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우려와는 달리 6월8일의 공기질상태는 상당히 호전되어 골프대회를 진행하는데 무리가 따르지는 않았다. 대부분이 고령인 우리 동문들이 야외 활동을 하게되니 오히려 가족들이 더욱 염려하는 형국이었다. 몇몇의 동문들은 가족들의 만류로 부득이 참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염려하는 가족들과의 약속 때문에 골프를 하는 내내 불편을 무릅쓰고 마스크를 끼고 운동하는 동문도 있었다.

덥지도 춥지도 않은 적당한 날씨 덕분에인지 점수들이 대체적으로 좋았다. 상을 받는 동문들도 여성/남성 그리고 White Tee/Gold Tee 간에 보기 좋게 골고루 나누어 차지하는 결과를 보였다. 김광현 회원은 타주로 이주를 하였다가 어울리던 친구분들이 그리워 다시 뉴저지로 다시 돌아와 이번 골프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었다.

Wallkill Golf Club은 음식도 괜찮고 Golf fee도 비교적 싼 편이어서 골프대회를 치루기에 가성비가 좋은 편이라는 데에는 이의를 달기가 어렵지만 한가지 불편한 점이 거리가 좀 멀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Flushing에서 부터 15인승 Van을 임대하여 운영을 해보았는데 호응이 좋아서 다음에도 거리가 먼 골프장인 경우에 계속 사용해보기로 하였다.

김병순 (사회82)

7월 골프대회 안내

7월 골프대회를 Sunset Valley Golf Course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이 코스는 4월달에 첫 골프대회를 했던 곳인데 코스 상태도 좋고 회원들의 기량들도 정점에 이르러 좋은 대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Two Person Scramble Format"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모두 색다른 재미와 경험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날짜: 7월 13일 (목)
시간: 오전 11시 (10시까지 도착바랍니다.)
디너 및 시상식: Flaming Grill
골프장 주소: 47 W Sunset Rd, Pompton Plains, NJ 07444
회비: \$120
등록: 김정필 (jaypkim@keiusa.com / 201-965-7759)



8월 골프대회 안내

8월에는 회원들의 호평을 받았던 **Walkkill Golf Club**에서 하게되었습니다. 플러싱 지역에서 교통편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 8월 10일 (목)
시간: 오전 11시 (10시까지 도착바랍니다.)
디너 및 시상식: Walkkill Golf Club 라운지
골프장 주소: 40 Sands Rd, Middletown, NY 10941

6월 Wallkill 골프대회 보고

날짜: 6월 8일 (목요일)
장소: Wallkill Golf Club, NY
참가인원: 28명
[W] 계동회 김동건 김병순 김정필 오용호 이영범 천병수 최병우
[G] 강에드 권정덕 김광현 배상규 성기로 손갑수 송웅길 송학린
우규환 윤선구 이종대 임도혁 한태진 홍종만
[R] 송근숙 송현자 안용희 이행순 정영자 홍선경 홍예경 홍정표
입상자:
 1등 홍예경(-2)
 2등 윤선구(-1) 천병수(0)
 3등 강에드 (0) 이종대 (0) 안용희(00)
근접: 손갑수 우규환 천병수 배상규
경비정산:
수입: \$3,360.00
지출: \$3,422.26 (교통편을 위한 van 임대료 \$400포함)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동창회 2023 정기총회 및 이사회 개최 안내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동문 여러분,
 여름의 한가운데의 작은 더위를 지나 큰 더위로 향하는 7월 중순의 절기에, 새로 구성되는 44대 회장단의 인준과 신규 회장단의 인수 인계를 위한 2023년도 정기총회 개최를 알려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날 동문 선후배들이 함께 만나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환담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차기 회장단이 동창회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3년 7월 15일 토요일 12시 정오 - 오후 3시
 제 1부: Reception & Lunch (12:00 - 1:00 PM)
 제 2 부: 총회(1:00 - 2:00 PM)
 43대 사업 및 회계보고, 44대 임원 인준 및 사업계획 보고
 제 3부: 축하 음악회 (2:00- 2:40 PM)

장소: Double Tree by Hilton, Fort Lee, NJ
 2117 Route 4E, Fort Lee, NJ 07024

이사장: 성기로 917-751-4533
회장: 금영천 718-791-4397
부회장: 연영재 201-233-7108



부음

저희 골든클럽의 창립 멤버이시고 전 서울대학교 뉴욕지역동창회 최철용 회장님께서 6월15일 저녁 영면하셨습니다. 향년 85세.

***유가족:** 미망인: 홍복자
 큰 아들: 최기종 며느리: 아라
 손자: Michael, Matthew
 작은 아들: 최재원 며느리: Erin
 딸: Malisa



입상한 윤선구 천병수 홍예경 강에드 이종대 안용희 회원



서울대 평의원대회에 참가한 뉴욕동문들



근접상 손갑수 유규환 천병수 배상규 회원



이준행 명예회장님을 방문한 김창수 곽선섭 이대영 회원



Wallkill Golf장에서 저녁 만찬과 시상식



천병수 회원 생애 2번째 hole-in-one 축하합니다
Country Club of the Poconos, 14번홀 163 yds

회원가입을 축하합니다

윤상영 (공대69)

주소: 225 Warren Ave, Fort Lee, NJ 07024

전화: 201-838-8792

email: josephsyy@hotmail.com

이승준 (공대64)

주소: 30 Davenport Way

Hillsborough, NJ 08844

전화: 908-625-7751

email: rheesh@aol.com



티샷을 준비하는 강에드 김광현 송학린 윤선구 회원

**-고 최철용 회장님을 추모하며-
“마음이 따뜻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분”**

■ 여주영 (명예회원)

이게 웬일입니까! 얼마전만 해도 우리가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갖고 다음달에 또 만나자며 헤어졌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무 말씀도 안하시고 그냥 가시다니요? 정말 허망하고 놀랍고 충격적이네요. 아직도 회장님은 건강하시고 매사 긍정적이셔서 앞으로 10년이상은 충분히 더 사실 잘 알았는데 이렇게 일찍 떠나시다니 너무 야속합니다.

고인은 내게 친정 오빠같이 늘 따뜻하고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서울대 동문 삼형제 커플과 다른 몇 동문 커플과 만남을 가질 때마다 언제나 고인은 저를 특별히 챙겨주셨습니다. 그 모임에 “연락병을 여 국장이 맡아, 그 직책을 뭐라 부를까? 간사 할까? 총무 할까?” 하시며 늘 어린아이같이 천진난만하게 웃는 얼굴이셨습니다. 그리고 모임이 끝나서 음식이 남으면 언제나 “이건 여 국장이 가져가,” 하시며 혼자 있는 저를 먼저 챙겨주셨습니다.

고인은 누구보다 진솔하고 소박하고 꾸밈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기계화되어도 누구보다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인으로 살던 분입니다. 매년 여름이면 집 앞마당에 대형 텃밭을 가꾸고 꽃나무와 과일나무를 기르며 보람있게 사시는 분이셨습니다. 또 시간만 나면 속세에서 벗어나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

으며 인생을 사는 것 같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잠은 물고기들은 주변 여러 지인들에게 일일이 나눠주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며 사신, 배려심 많고 사람을 사랑하는 매우 인간적인 분이셨습니다.

고인은 형제간의 우애를 제일 모토로, 가정에도 부인과 자식들을 누구보다 많이 사랑한 가정적인 분이셨고 가족을 위해 늘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신 모범적인 분이셨습니다. 부인이 나와 함께 골프를 치러 오고 가다 보면 아내를 시도 때도 없이 찾고 또 찾고 할 만큼 그는 부인 없이는 정말 못살 것 같은 지독한 애처가셨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의 고인을 마지막 병상에서 보낼 때 잡은 손은 여전히 따뜻하고 심장도 펄떡 펄떡 뛰는 것을 보면서 일말의 희망을 가졌지만 그는 결국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 아픔과 슬픔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정말 좋으신 분을 떠나보내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남기신 아름다운 족적을 기억하며 살 것입니다. 그동안 베풀어주신 사랑,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고통없는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가십시오.



고 최철용 회원 장례미사



고인의 삶을 돌아보며 조사를 하고 있는 이진구 회원



장지에서 하관예절 중 동생과 마지막 작별하는 최수용 선배님



고인과의 마지막 대면을 하고 있는 여주영, 임호순, 우규환 회원

환경학 산책

■ 오순문(사대 68)

역사가들은 천년 로마가 망한 이유를 외부세력의 압박,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 성적문란, 등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갑자기 로마가 망한 이유가 납수도관을 사용함으로써 국민들이 납에 중독되어 정신착란이 만연해지고, 성격들이 포악해지면서 사회가 무너졌다는 학설이 나타났다. 그 후, 또 어떤 사람들은 납 그 자체는 물에 녹지 않아 몸에 흡수되지 않는데, 납으로 술잔을 만들어 쓰면서 포도주 숙성과정에서 생기는 초산과 납이 반응해 생기는 맛이 좋은 초산납($Pb(CH_3COO)_2$, Sugar of Lead)을 섭취함으로써, 귀족지배층이 정신착란과 광기에 빠져들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1960-70년대에는 납을 비롯한 수은, 크롬, 카드뮴, 등의 **중금속**들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알려졌고, 그 후 베토벤이 청각장애와 통증으로 고생했던 것도 매독 때문이 아니라 납중독 때문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만약, 지금까지도 중금속의 위험성을 몰랐다면 모든 차량에서는 gasoline 에 납화합물(Tetraethyl Lead)을 계속 넣어 사용했을 것이고, 하얀 피부에 좋았던 수은화장품도 계속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을 것이다. 사소해 보이는 무지가 인류를 큰 재난으로 이끌 수도 있었다.

20세기 들어 인구가 급증하면서 자연은 파괴되고, 수천년 동안 유지되어 왔던 균형들이 깨졌다. 독성이 있는줄 모르고 사용하던 수만종의 화학물질중 높은 농도에서는 90%가 **발암물질**이란 것도 알려졌다. 벤젠 같은 용제는 사용이 금지되었고, 고기를 구울 때 생기는 벤조피렌은 가장 확실한 발암물질로 지정되었다. 타목시펜을 비롯한 합성여성호르몬 등, 항암제의 대부분은 발암물질이고, 땅콩 곰팡이에 있는 아플라톡신은 천연 발암물질로 간암을 일으킨다.

특히 **환경 호르몬**은 생물체에 흡수되면 호르몬처럼 작용해, 극소량으로도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인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다. 한 연구에 의하면 1973-2018, 45년 사이에 전세계적으로 남성의 정자수가 50% 이하로 감소하였고, 2000년 이후로는 매년 2.6%씩 정자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그 원인으로는 인간의 생식능력을 좌우하는 steroid 계통의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phthalate때문인데, phthalate는 단단한 PVC 플라스틱을 물렁물렁하게 하거나 필름과 같이 유연하게 만들때 섞어서 쓰는 가소제(plasticizer)로 사용량이 어마어마한데 전세계인이 수십년 동안 접촉하고 먹었다. Canada Vancouver 앞바다에서는 1970년대에 달팽이가 완전 폐사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이유는 선박바닥에 칠하는 페인트에 섞여있던 유기주석(Tributyl Tin)이 바닷물에 녹아서 암컷 달팽이의 성기관을 막고 숫컷성기가 자라게해, 모두 숫컷이 되어 죽게 된 것이었다. 그 외에도 감염영수증에 쓰이는 BisphenolA와 플라스틱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Dioxin, DDT(살충제)와 Agent Orange(고엽제), 등 약100여종의 환경호르몬은 극미량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공장과 도시의 먼지는 안개와 섞여 스모그(smog)현상을 일으키는데, **공기오염**은 과거 안개의 도시 런던이나 로스엔젤레스, 멕시코

시티, 지금은 중국이 심각한 상태에 있다. 특히 2.5마이크론 이하의 미세먼지는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 깊숙히 침투해 폐기종이나 폐암을 일으킨다. 냉매로 사용되는 Freon Gas로 인한 오존층 파괴는 자외선으로 범지구적인 영향을 미쳤다.

수질오염은 엄격하게 처리된 후에 방류하지만, 스스로 정화되기엔 균형이 이미 깨졌다. 농약 중금속 생활폐수 공업폐수, 등으로 지금은 바다까지 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탄소세등의 국제협약 외에도 전기자동차의 의무화, 수소에너지, 태양전지, 수력, 풍력, 조력, 지열, 등의 대체 에너지가 추진되고, RE100(100% Renewable Energy)을 목표로 기술들이 개발되고, 국제무역에서도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처음 1970-80년대에는 **환경학**이 대기오염과 수질오염, 등을 처리하는 것이 과제였지만, 그 후에는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감축, 오존층 보호, 원자핵에너지, 멸종 위기의 동식물, 재난대처, 등으로 주제가 다양해졌고, 국제협력과 사회이슈에도 민감해졌다.

과학자들은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이고 낙관적인데, 물이 부족해질거란 예측들을 보면서도 바닷물을 더 값싸게 담수화시키는 기술들을 개발하려 하고,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보통 염록소보다 수백배 빠르게 탄소동화 작용을 하는 해조류나 촉매를 찾아내려 하고, 이산화탄소를 식량자원으로, 사막을 옥토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위험하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소형 원자로를 개발(Small Modular Reactor)하고, 효율성이 좋은 태양전광판과 에너지 저장장치를 개발해서 200년 역사의 탄소중심 에너지 순환과정을 아예 태양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꾼 후, 수소와 같은 저장장치로 무한대의 청정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꿈꾸고 있다.

세상을 바꾸는데 필요한 핵심기술들은 이미 놀라울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는 줄도 모른다. 핸드폰에만 필요한 기술이었다면 1983년 모토롤라와 1992년 IBM의 시제품들에 나와 있었고, 2007년 Apple에서는 APP의 생태계를 가미시킨 것이었다. Elon Musk의 Tesla나 spaceX의 기반기술들도 이미 알려져 있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에서 태동되는 **NEOM CITY PROJECT**도 기초기술들은 대충 갖춰져 있지만, 마치 인류가 맬더스의 어두운 인구론에서 신대륙으로 탈출했었던 것 같이, 사막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지, 아니면 돈먹는 허상이 될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 같다.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르는 약 5,000개의 지구형 행성 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5만광년 떨어져 있다고 한다. 하나뿐인 외로운 지구를 아끼고, 공부하고, 보호해야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게 실감이 난다.

인상주의 미술의 이해...

■ 김광현(미대57)

프랑스는 1667년부터 200여년간 정부주도의 사롱전시회 (Le Salon Exhibition)를 매년 또는 격년으로 개최해 왔다. 사롱전은 한국의 국전과 같은 성격의 작품전으로 수상 작가들은 출세의 길을 걷게 되는 구조를 지켜왔다.

1863년의 사롱전에서는 5000여점의 작품 중 3000여 점이 낙선하게 되는데 이 많은 낙선작 심사 위원들의 권위적이며 고답적 심사기준과 고전주의적 경향의 작품들인 역사화나 종교화를 선호하는 아카데미 교수들의 편파적 심사에 격분하였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국왕 나폴레옹 3세는 이 큰 소요를 무마하기 위해 낙선전(Salon Des Refuses)을 개최토록 하였고 이 낙선 전의 한 작가, 마네는 1865년에 낙선한 '올림피아'란 작품과 '풀밭의 점심식사'를 선 보였다 많은 젊은 작가들과 함께 작품들을 전시해 오랫동안 시행해 온 사롱전의 모순인 심사의 비합리성을 성토했으며 작가의 자아적 작품 표현으로 새 시대를 새롭게 인식하는 혁신적 인상주의 미술 (Impression Art)이 만들어 지게 된다.

인상주의란 용어는 1874년 4월 15일, 미술가인 모네(Claude Mont,1840-1926)가 파리의 '미술 및 조각가들의 무명협동조합'이 '새로운 회화'의 주제로 사롱전에 대항하는 전시회를 가졌다.

이 전시회에서 당시 미술평론가 루이 우르아(Rui Ulua)는 이 전시회를 **인상주의자들의 전시**라고 경시 했으니 모네의 작품인 **인상,일출** (Impression, Sunrise)을 보며 너무 쉽게도, 자기 멋대로 그렸다고 경멸조의 글을 일간지에 올려 인상적 미술이란 새로운 회화 기법이 싹 트는 시초가 되었으며 젊은 미술가들인 마네, 모네, 세잔, 고갱, 드가, 쉬스리, 로드락, 테너, 고흐, 르노아루 및 피사로 등은 프랑스 전통미술공동체로부터 가혹한 따돌림에 직면하면서 1886년까지 8번의 전시회를 갖기도 했다.

젊은 인상주의 작가들은 프랑스의 권위주의



Édouard Manet. Olympia (1863)

Luncheon on the Grass
Édouard Manet 1863



Sunrise (Marine) Claude Monet 1872 or 1873

및 전통성의 양식과 기법을 과감히 무너 트리는 즉, 화실내에서의 작업, 광선의 빛과 그림자의 2분법의 몰두, 정밀 묘사 및 원근법 중시성을 타파하는 화법으로 자연 광선의 강한 노출과 화실 외로 나가는 답사작업 및 자신만의 창의성을 활발히 표현하게 되었다.

혁명적 인상주의 회화가 일어나게 된 직, 간접의 원인으로, 첫째, 산업혁명인 기술 및 기계의 혁신적인 제조공정의 변혁이 그림 물감인 주석 튜브(1824) 양산이 묘사기법의 다양화를 이룰 수 있게 됐고, 둘째, 왕권주의를 응징하면서 새로운 시민 혁명인 프랑스 혁명 (1789)이 자아 중심의 젊은 화가들의 집단성의 작업패턴을 만들었고, 셋째, 파리의 세계만국박람회 (1867)로 국가간 문화, 미술교류로 벤치마킹의 회화의 세계화 영향을 갖게 됐다.

인상주의 회화는 세계 미술사를 통해서 가장 큰 변화와 혁신으로 기록되며 20세기 미술의 열키고 설킨 복잡성과 다양성, 유전자 변형과 같은 다양성 및 다변성을 만들게 됐다고 보겠다. *



La moisson (The Wheatfield behind Saint Paul's Hospital with a Reaper)
Vincent van Gogh 1889



주석 튜브 물감

회원 명단 (116명 / 2023-6-25)

강교숙	김병순	박희병	유무영	이행순	최준희
강에드	김상만	배상규	윤선구	이흥빈	최진영
강영선	김승호	성기로	윤상영	임도혁	최철용
계동휘	김영덕	손갑수	윤종숙	임창우	최재욱
고애자	김영만	손경택	윤현남	임호순	한영수
곽상준	김우영	손대홍/	이강홍	정도현	한응오
곽선섭	김익성	남종현	이민제	정수일	한태진/
곽승용	김인형	손옥화	이상무	조달훈/	한태진/
구달회	김정필	송근숙	이승준	조승자	안용희
권문웅	김종윌	송웅길/	이준	정해민	안용희
권정덕/	김창수	송현자	이대연	조상근	허유선
홍선경	김치갑	송학린	이대영	주상선	홍사만
권영대	김태일	송혜순	이영범	주재양	홍정표
권태전	김한중	신진식	이용대	진봉일	홍지복
김영천	김현중	신응남	이전구	천병수/	홍종만/
김광수	노용면	오윤호	이종대	천종화	홍예경
김광현	민준기	오유섭	이종석	최구진	
김동건	박기환	오인석	이준행	최병우	
김문경	박상원	우규환	이준희	최수용	
김문언	박준구		이태호	최순채	

골든클럽 2023년 행사 일람 (2023-6-25)

1월	22~28일	플로리다 골프트립 (18명 참가)
2월	9일(목)	편집위원 운영위원 간담회 (16명 참가)
4월	1일(토)	신년교례회 - KCC Tenafly, NJ
	13일(목)	Hiking -Harriman Park (8명 참가)
	20일(목)	Golf Outing -Sunset Valley (32명 참가)
5월	18일(목)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 -Split Rock Golf Club (41명)
	25일 (목)	Kaaterskill Fall 방문 (21명 참가)
6월	8일(목)	Golf Outing - Wallkill Golf Club (28명참가)
7월	13일(목)	Golf Outing -Sunset Valley ,NJ
8월	10일(목)	Golf Outing - Walkill Golf Club, NY
	17일(목)	골든클럽 피크닉
9월	14일(목)	Golf Outing- Pelham Golf Club,NY
10월	12일(목)	동창회 추계골프대회
11월	2일(목)	Golf Outing
12월	2일(토)	뉴욕지역동창회 송년회 -Double Tree Hotel
	10일-16일	Myrtle Beach Golf Trip
3월	23일(토)	신년교례회

2023년 연회비 납부 명단 (81명 / \$8100 /2023-6-25)

강교숙	김익성	배상규	오순문	이종석	최순채
강에드	김정필	성기로	오용호	이행순	최준희
강영선	김창수	손경택	오인석	이흥빈	최철용
곽선섭	김치갑	손갑수	우규환	임도혁	한영수
곽승용	김한중	손대홍	윤상영	임호순	한응오
권영대	홍선경	남종현	윤선구	정수일	한태진
권정덕	권문웅	손옥화	이대연	정해민	한용희
권태전	김영천	송웅길	이대영	주상선	홍선경
계동휘	김상만	송현자	이상무	조달훈	홍정표
김광현	김종윌	송근숙	이승준	조승자	홍종만
김동건	민준기	송학린	이영범	천병수	홍예경
김문경	박기환	송혜순	이용대	천종화	
김문언	박상원	신두식	이전구	최병우	
김병순	박희병	신진식	이종대	최수용	

2023년 후원금 기부 명단 (26명 / \$11,280/2023-6-25)

강에드 200	김치갑 80	오용호 300	최수용 1000
권정덕 300	김한중 200	우규환 200	최순채 100
금영천 300	성기로 500	윤선구 200	최준희 400
계동휘 500	손경택 1500	이전구 1000	최철용 200
김광현 200	신두식 200	이행순 200	한태진 500
김문경 200	신진식 300	임호순 300	홍종만 1000
김종윌 200	오순문 200	정해민 1000	

2023년 입회비 납부 명단

신두식 200	이영범 200	박상원 200	윤상영 200	이승준 200
---------	---------	---------	---------	---------

발전기금 기부명단 (1명 / \$20,000 /2023-6-25)

이준행 20,000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AA**)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AA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Zelle: 201-965-7759 Jay Kim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입회비 \$200

단과대:

학과:

입학년도:

졸업년도:

연회비 \$100

전화번호:

Email:

후원금 (\$))

주소 (Home):

Zelle 사용안내: 골든클럽에 회비/후원금/참가비등을 Zelle 로 납부하실 분은 201-965-7759 (Jay Kim)에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 message란에 영문이름과 내용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7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 강교숙 (간호73)
- 구달회 (상대56)
- 권정덕 (의대58)
- 김병순 (사회82)
- 김영만 (상대59)
- 김태일 (공대68)
- 송혜순 (사대62)
- 이용대 (약대63)
- 이종대 (약대65)
- 이흥빈 (의대57)
- 정수일 (대학원)
- 주상선 (공대73)